

민주 '野 원탁회의' 화답... 중도 외연 확장 나선다

“헌정 파괴 맞서 모든 세력 힘 모아야” 조국혁신당 제안 수용 개혁신당 이어 시민사회로 연대 확대... 정치개혁 이슈 논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야권의 '내란중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민주당이 혁신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등 중도 포섭을 위한 정책 변화와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민주당의 정책 변화에 대한 혁신당 내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야권 협력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을 전방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곧 열릴 실무회의에서 명칭과 형식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연대할 계획”이라며 “우선 정당들의 모임 형태로 출범을 하고, 이후 시민사회와 연대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내란중식 원탁회의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며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의 헌정 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에 연대를 위한 원탁회의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응원봉 시민'까지 연대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해 기꺼이 선행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주장해 온 정치개혁 이슈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우클릭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원탁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당이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내 중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원탁회의에서도 '사안별 이견'이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는 전망 등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담은 보수집회 자료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尹 접견' 국힘에 “지지자 선동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데 대해 “차라리 당사를 구치소로 옮기라”며 맹공에 나섰다.

박지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여당 1·2인자라면 현 상황에서 내란수괴와의 인간적 관계를 끊어야 한다. 사죄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후후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 면회는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이라며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석열은 탄핵 기각 및 형사 재판 무죄를 위해 집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진정성’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수괴와 단절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내란수괴와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수괴에게 당에 기생할 발미를 주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이던 이용우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당 지도부가 자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겠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야정협의체, 오늘 실무협의 재개

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정부와 여야가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실이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중단됐던 논의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실무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 이슈 대응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 “尹정부, 서민 보금자리 예산 2조5000억 삭감”

예결위·과방위원 기자회견... “과도하게 추계된 예비비·특별비 조정”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차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용자 예산으로, 무려 2조 5000억원이다.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힌 지역회복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한 데 대해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추계된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와 특별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바로잡을 것”이라며 “예비비를 영동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비비 감액이 민생예산 삭감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경비

를 희석비로 쓴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특경비 사용 내역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외하고는 권력기관이 수사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최소 5조 원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추경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 의장 “2월 임시국회서 추경 합의해야”

국정협의회서 민생경제 입법 논의·산업통상 이슈 대응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특위, 기후 특위, 윤리특위도 반드시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